

섬진강이 600리 달려와 숨 고르는 곳... 바다로 '새로운 시작'



뒀 올리는 江 동서통합지대 화합의 江 섬진강 16 광양

광양은 섬진강이 바다로 흘러 가는 길목이며, 광양계철소와 광양항이 위치하고 있어 국가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다. 특히 15만 2000여명의 시민 중 영남 출신이 25%에 달해 정부가 섬진강 일대에 조성하는 동서통합지대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도 중요하다.

◇호남 경제 1번지=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(청장 이희봉)은 개청 이래 광양은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의 경계를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다. 광양 컨부두 및 동·서측 배후지, 해동일 반산단 제1단계 사업 준공과 울촌 제 I 산단 및 신대배후단지 등 개발 가능한 지역이 많다는 것도 장점이다.

또 울촌 제 II 산단, 황금·세풍산단, 갈사만 조선산단 등 6개 산단 460만평이 개발을 앞두고 있다.

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남 동부·경남 서부 경제 견인 광양항 물동량 4년 연속 200만 TEU '동북아 물류거점' 정부, 해상관광루트 개발·해양플랜트클러스터 구축 추진

SOC도 충분하다. 순천~완주간·목포~광양간 고속도로, 전라선 KTX·경전선 복선화, 이순신대교 개통 등 광역교통망과 권역 내 진입·간선도로 등 순환 교통망이 풍부하다. 또 주거·관광소광·교육·의료기능의 신덕 주거업무지구를 비롯해 관광·교육·문화 복합기능을 수행할 화양 문화관

광지구, 해양플랜트·레저·주거기능의 하동 해양산업지구도 특화해 개발 중이다.

광양은 또 호남 물류의 중심지다. 광양항 물동량은 4년 연속 200만 TEU 달성,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.

◇물류와 해양 관광중심지로 조성=정부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광양만 일대를 국제수준의 해양관광지대로 육성한다. 한려수도길, 이순신해전길 등 도사지역을 연계한 해상관광루트를 개발하고 전남의 철강산업, 항만물류와 경남의 해양플랜트 산업의 경쟁력을 융합한 해양플랜트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.

대 일본 수입소재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광양만권에 미래형 소재산업 거점 육성하고,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도 추진한다.

또 광양만 일대를 문화·관광 중심지대로 조성하고,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기반도 구축하게 된다. 광양만 항만시설 보완해 관광루트 개발하

고, 해상관광 활성화를 통해 영호남이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복안이다. 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하고, 광양~하동의 문화예술회랑지대를 연결하는 동서통합대교 건설 및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도 보수 후 재개통한다.

◇케이블카 설치 논란도=정부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 중 하나로 광양시 불암산~하동군 하동공원을 잇는 케이블카(3.5km) 설치가 추진된다. 하지만 구례·남원·산청·함양군 등 지리산 인근 4개 시·군이 케이블카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, 섬진강에도 케이블카 건립이 추진돼 환경단체의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.

국도교통부는 예산 300억원을 들여 불암산~하동공원을 잇는 가칭 '섬진강 하늘길 케이블카'를 설치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 전남도는 케이블카 설계비 등으로 내년엔 3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으로 요청한 뒤 오는 2016년에 케이블카 설치에 들어갈 방침이다.

이 케이블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섬진강 일대에 추진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 중 하나이며,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 기본 구상에도 포함됐다.

전남도는 국비 30억원과 지방비 30억원을 우선 마련해 기본설계를 끝낸 뒤 민자 240억원을 유치해 케이블카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.

반면, 사업비의 80%를 민자로 유치해야 하고, 섬진강 구간 중 가장 아름다운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.

(제1부 끝)

/오광복기자 kroh@kwangju.co.kr



광양항 컨테이너 부두



대형 크루즈 입항



입항하는 중 관광객들

광주 1등맛집
5회 연속 1등맛집 선정
2006년(1기), 2008년(2기), 2010년(3기)
2012년(4기), 2014년(5기)

**모임이 있으신가요?
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?**

세미나, 가족모임,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!
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.

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
예약문의 (062) 525 - 2111 (개령동 율동로 32번길)

Since 1981 **1등 맛집 연속 선정**
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켰은 광주의 대표 맛집

금수장관광호텔
아리랑하우스

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/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/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/ 맞춤형 출장 도시락 /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.geumsoojang.com